

‘괴기(怪奇)’와 공포의 취미화

김지영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연구 교수

1.

‘괴기’라고 하면 요괴, 귀신, 유령, 괴물 등이 떠오른다. 어둡고 야수적인 본성과 마술 공포가 지배하는 세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도 이성적으로 제어할 수도 없는 잔혹하고 초자연적이며 음울하고 신비한 세계가 오늘날 ‘괴기’라는 말이 떠올리게 하는 세계이다. ‘괴기’는 또한 아직 과학 문명의 세례를 받지 못한 옛날 옛적 야만의 세계를 연상시키는 말이기도 하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의 여과를 거치지 못한 잔인하고 충동적인 본성, ‘나’와 세계 간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는 애니미즘적인 사고, 점액·타액·오물과 같이 미끈거리고 혐오스런 액체들을 뒤집어쓴 미성숙한 존재, 사무치는 원한이나 욕망에 사로잡혀 초자연적 힘으로 산 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요괴와 귀신들이 지배하는 세계 등등, ‘괴기’가 연상시키는 것은 현대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성 너머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들과 마술적인 힘들이다. 인간과 자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불합리하고 야만적인 세계를 연상시키는 단어로서, ‘괴기’는 신화·전설과 같은 과거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한국에서 ‘괴기’라는 말이 지금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괴기가 근대화 이전의 시대를 연상시키고, 과학과 이성의 저편에서 잔혹하고 마술적이며 비윤리적인 세계를 지칭하는 흥미 기호가 된 것은 적어도 식민지 중반이 지나서부터였다.

2.

한자 '괴(怪)'와 '기(奇)'의 결합으로 구성된 '괴기(怪奇)', '기괴(奇怪)'는 전통 사회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말이었다. '특이한 것(異), 행동이나 마음·모양 등이 비상함, 정상(常)에 반대되는 것, 일반적이지 않은 사물' 등을 가리키는 '怪와 '다르다, 괴이하다, 뛰어나다, 들연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奇'가 어울려 쓰인 것은 두 글자가 공통적으로 '常', 즉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을 지칭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것을 지시하면서도 '怪'와 '奇' 사이에 미묘한 차이는 있었다. '奇'가 정상적인 것을 이탈하면서도 뛰어난 것을 가리키기도 했던 것과 달리, '怪'는 '미혹됨', '의심스러운 것' 등을 포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기괴'와 '괴기'는 모두 '드물고 특이하여 일반적이지 않다'는 서술적 의미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이라는 명사적 의미로 함께 쓰였고, 실제로 '괴기'보다는 순서를 뒤바꾼 '기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다. 중세의 문헌에서 '기괴'와 '괴기'는 도리에 맞지 않는 사악한 사물이나 현상을 가리키는 데도 쓰였지만, 더 많이 사용된 것은 서화(書畫)의 빼어남이나 산천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일이었다.

- ① 그 글자 모양은 기괴(奇怪)하여 신인(神人)이 쓴 것 같고 사람의 필력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었다.
- ② 기괴(奇怪)한 산천초목이 제각각 모양을 자랑하는구나.
- ③ 소동파의 시 가운데 괴기(怪奇)한 시구가 있는데, (...) 그것은 暗潮生渚

落月挂柳라는 기막힌 구절이었다.

- ④ 경신년 이후로 국가에 일이 많고 세상이 매우 험난하여 기괴한 무리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앞의 세 사례들에서 '奇怪', '怪奇'는 묘사하기 어려운 만큼 빼어난 서화(書畫)와 문장, 수목 산천의 아름다운 양태를 형용하는 데 동원되어 월등함, 탁월함, 훌륭함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활용된다. ④의 예와 같이 부정적인 사례도 적지 않지만, 중세 문헌에서 '기괴/괴기'가 사용된 비중은 ①, ②, ③과 같은 긍정적인 사례가 더 많다. 즉 오늘날의 쓰임새와 달리, 전통 사회에서는 '기괴'나 '괴기'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양쪽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중립적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

이런 성격은 개화기에도 계승되었다. 개화기 문헌에는 '기괴'의 사례가 압도적인데, '석벽이 괴괴하다', '형상이 괴괴하다', '괴괴괴괴한 물건' 등 범상치 않은 모양을 형용하거나, '괴괴하고 흉악한 것', '음담패설 괴괴스'와 같이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곤 했다.

3.

1920년대부터 1930년경까지 문헌에서도 '기괴'는 '괴기'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면서, 괴상하다, 교묘하다, 부당하다, 허황되다, 원인을 알 수 없다, 묘사가 불가능할 만큼 멋지다, 묘사스럽다, 미신적이다, 주술적이다 등등 실로 다양한 의미의 스펙트럼을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奇'와 '怪'가 가리켰던 비정상성 혹은 차이와 다름의 의미가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 그만큼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세와 같이 사물의 형상을 탁월하고 훌륭한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는 현저히 줄어들며, 오늘날의 '기괴/괴기'와 같은 '추하다, 무섭다'라는 의미도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1920년대에 '奇'와 '怪'가 가리켰던 비정상성이 가장 많이 동원되었던 것은 반어적인

형식의 사회 비판들이었다.

1920년대 신문, 잡지에서 '기괴'라는 어휘는 미신이나 잘못된 인습, 일제의 불합리한 처우와 행위를 꼬집고 개선을 요구하는 기사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 ① 「기괴한 악마, 허황한 미신으로 사람을 죽게 한 자.」(《조선일보》, 1924.11.29),
- ② 「아프리카 토인의 기괴한 비 비는 祭 -소를 잡고 쇠뿔치를 내두르며 구름을 불러 비오기를 빈다고.」(《조선일보》, 1925.4.22),
- ③ 「정신병자를 발바닥으로 치료? -성신 받았다는 여인이 기괴망측한 미신 행위.」(《조선일보》, 1926.5.18)
- ④ 「農監의 기괴한 수단 - (...) 돈 받고 소작권 줌.」(《조선일보》, 1923.6.30)
- ⑤ 「조선인의 승선을 거절 -불량 선인은 위험하다고, 기괴한 선장의 거절 이유.」(《조선일보》, 1926.9.30)

이처럼 '기괴'가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던 것은, 계몽주의라는 시대 정신으로 인해 '奇'와 '怪'가 가리켰던 비정상성이 불합리성과 자주 연계되어 이해되었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기괴'의 함축적 의미가 불합리한 인습과 태도, 현상들을 꼬집는 데 활용되면서 비판적인 문장에 자주 쓰이게 된 것이다. 비판의 시선이 미치는 영역은 대단히 넓었다. 조혼, 노예 근성, 허례허식과 같이 허위적인 전통 인습이 '기괴망측'한 것으로 공격을 받은 것은 물론, 왜복과 계다의 유행 등 왜색 짙은 문화가 날카롭게 꼬집혔고, 음탕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풍속, 음풍농월하는 태도 등 생활상의 골불견들도 일일이 지적되었다.

요컨대, 1920년대 중반까지 '기괴'는 생활의 개선과 의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계몽의 수사였으며, 식민지 기관과 관료의 부당한 처사나 행위를

비관함으로써, 합리적 질서의 확립을 촉구하는 반어적 어휘였다.

4

1920년대까지 ‘괴기’, ‘괴기’가 동의어로 쓰이면서도 ‘괴기’의 용례가 압도적 우위에 있었다면, 1930년대에는 ‘괴기’라는 말의 용례가 확연하게 증가한다. 1929~1930년을 기점으로 ‘괴기’, ‘괴담’과 같이 ‘怪’를 앞세우는 어휘의 용례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30~1933년 사이에 상당한 유행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괴기’, ‘괴담’의 새로운 유행은 그로테스크(줄여서 ‘그로’로 주로 쓰였다)라는 외래어의 유입과 관련이 깊다.

1930년대 조선의 잡지에는 ‘에로-그로’라는 용어가 대대적으로 유행하는데, 이는 동시대 일본 대중문화의 유행 현상을 그대로 직수입한 것에 가깝다. 1930년대 일본의 미디어는 ‘에로-그로-년센스’를 하나의 선전 문구로 내세웠다. 이 통속적 표어는 세계적 공황과 군국주의화라는 사회 변화 속에서 당시 대중들의 관심을 비정치적인 데로 이끌려 했던 일본의 국가 전략에 의해 지지되었고, 실제로 좌절감이 팽배했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기반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다. 일본의 ‘에로-그로’ 문화는 통속적인 대중 잡지를 통해 조선 사회에서도 재빨리 유입된다. 1930년대 초반 대중 잡지에서는 ‘에로-그로’ 혹은 ‘에로-그로-년센스’가 숙어처럼 붙어다니며, 자극을 통해 흥미를 유도하고자 하는 통속적인 문화의 침단을 선도했다. 이 때 ‘괴기’라는 용어는 ‘그로/그로테스크’의 번역어로 새롭게 부각된다.

그로 : 그로테스크(영어의 Grottesque)의 약(略)으로 괴기(怪奇)란 말이다.

본래는 황당 환기한 작품을 평하는 말로 많이 쓰였다. 최근에 와서 일상생활에 권태를 느낀 현대 사람들이 무의미한 위안으로 괴이한 것, 이상야릇한 것을 자주 갖게 됨을 따라 엮기하는 경향이 날로 늘어가서

이방(異邦) 수토(殊土)나 고대 민족의 진풍(珍風)기속을 찾거나 혹은 세인의 이목을 놀랄만한 기형이태(奇形異態)를 연출하는 일이 많다. 이 때문에 괴기, 진기를 의미하는 '그로'라는 말이 성행한다. - 「신어 해설」, 《동아일보》, 1931.29

그로테스크 : 영어. **괴기하다는 뜻인데** 너무 에로틱하기 그 정도를 넘긴 것도 그로테스크하다고들 쓴다. 예를 들면 식인종의 뎀스가튼 것을 그로테스크한 장면이라고 할 것이다. **특하여** 「그로」가 늘 병행되는 것이 20세기 울트라모던인의 조하하는 바이다. - 「모던語點考」, 新東亞 제15호, 1933.1. 111면.

「신어 해설」, 혹은 「모던어점고」 등의 제목으로 세간에 유행하는 새로운 어휘들을 해설하곤 했던 조선의 대중 미디어는 그로테스크를 '괴기'라는 말로 번역, 소개했다. '괴기'가 선택된 것은 일본의 영향 탓이었지만 새로운 용어의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쓰이던 '괴괴'보다는 '괴기'가 효과적이었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녔던 '怪'의 미묘한 감각적 효과를 앞세우는 것이 그로테스크를 번역하는 데 더 적당했던 것이다. 미디어들은 서구 문예 양식의 하나에 기원을 둔 그로테스크라는 말의 어원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에 공들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로테스크한 형상이나 이야기를 탐닉하는 당대인의 기호(嗜好)와 그들이 즐기는 그로테스크한 취향의 사례들이다. 식인종들이 살아가는 야만의 땅, 고대 민족의 진기한 풍속, 과도한 에로스의 표현 등 권태에 찌든 당대인들의 말초적 흥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취미 기호의 하나로서 그로테스크는 소개되고 있었다.

이처럼 그로테스크의 번역어가 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괴기'는, 과거 '괴괴'의 의미를 일정 부분 계승하면서도 그 속에 잔혹성, 섬뜩하고 마술적인 분위기 등 공포를 환기하는 정서들을 중심으로 담아내기 시작했다. 진기한 자연과 사물의 형상을 중립적으로 묘사하는 데에서 나아가

괴, 살인, 시체와 같은 잔혹하고 끔찍한 것들을 동반한 사건, 귀신, 유령, 괴물 등이 등장하는 섬뜩하고 소름끼치는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제한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1930년경부터 신문은 살인과 같은 잔인한 범죄 사건들을 보도하면서, 사건의 잔혹성을 지칭하는 어휘로 ‘괴기’라는 말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표류선 중에 괴기- 동강동강난 船夫 시체」(《조선일보》, 1934.5.26), 「개성 교외의 괴기- 유기된 상자 속에 人脚」(《동아일보》, 1937.10.26.) 등의 예에서와 같이 신문 기사들은 신체 절단과 같은 혐기적 행위를 동반한 살인 사건의 표제어로 ‘괴기’를 앞세우게 된다. 밀감 상자에서 아동의 시체가 발견된 사건, 친족을 살상한 자가 산신으로 가장하여 영등한 이에게 살인 자백서를 강요한 사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취조 받던 아버지가 급사한 사건 등등 ‘괴기’는 잔혹하면서도 교묘하고 기막힌 우연이 겹치는 살인 사건들을 묘사하는 데 동원되었고, 원숭이와 혼인하는 종족, 유령이 나오는 건물, 구경꾼을 식겁하게 만든 소복 처녀 등과 같이 이색적이거나 공포스런 현상들을 보도하는 데에 이용되었다.

신문이 혐기적인 살인이나 이색적이고 공포스런 현상들을 보도하는 데 ‘괴기’라는 말을 동원함으로써 괴기와 공포, 호기심을 함께 결합시켰다면, 잡지들은 잔혹하고 선정적인 이야기들을 흥미 기사로 실어나름으로써 ‘괴기’가 떠올리는 공포와 통속적인 흥미의 결합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1930년대 초반부터 잡지들은 에로틱한 기사와 괴담, 괴기 실화, 범죄 실화 등을 게재하는 데 열을 올린다. 유아를 끊어 먹고 붙잡힌 여인, 멜더스의 인구론을 읽고 30여명의 여성을 살해한 늙은 제대 군인, 토막 시체를 가방에 넣고 돌아다니는 在美 중국인 청년, 배신한 아내와 친구를 동료와 함께 난자한 탈옥수, 양성으로 태어나 28년 동안 여성으로 살다가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일본인 등등 무시무시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특별 독물, 괴기 실화, 범죄 실화, 특호 실화 등의 이름을 달고 보도되었고, 이를 통해 ‘괴기/그로테스크’의 취향을 부추겼다.

섬뜩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범람하고, '괴기'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대표하는 어휘가 되어가면서, '그로/괴기'는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속성과 첨단적이고 세기말적인 퇴폐 문화를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 잡는다. 강렬한 자극에 대한 갈망, 쉽게 싫증을 느끼는 신경을 만족시킬 만한 새롭고 기이한 것에 대한 갈구가 '괴기' 취향의 원인인 동시에 '괴기' 자체가 실어나르는 의미의 저변을 이루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괴기'의 의미 변화는 '기괴'의 의미에도 변동을 불러왔다. '불합리하다 부당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던 1920년대 중반까지와 달리, 1930년대 '기괴'는 '끔찍하고 충격적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사례가 월등하게 늘어나는 것이다. '쭈'와 '짱'이 지시하는 차이와 다름이 공포의 정서를 지배적으로 담아내기 시작한 것은 이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현상이었다.

5.

'괴기'가 공포를 일종의 취미로 변형시킨 취미 기호로 바뀐 데에는 '그로테스크'라는 외래어의 영향이 일차적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외래어를 성행시켰던 식민지 중반의 문화적 변동 또한 '기괴', '괴기'라는 어휘의 의미 이동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문 잡지와 같은 미디어의 발달, 소비적인 대중문화의 형성, 도시적 생활 감각을 지닌 새로운 소비 계층의 등장, 도시 생활의 권태에서 비롯된 변태적이고 혐기적인 취향의 발생 등등 문화적 변동 또한 '그로테스크'라는 외래어의 유입 이상으로 '괴기'가 새로운 의미 영역을 마련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요소인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괴기'가 주로 떠올리는 '과거' 사회에서는 정작 '괴기'가 것처럼 부정적이고 공포스러운 것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괴담이나 괴기는 공포스럽고 야만적인 옛 과거에 기원을 둔 이야기라

는 일반적인 통념이 발생한 것은 오히려 1930년대부터였다. 그리고 그것은 근대 대중문화가 '괴기'라는 말을 하나의 취미 기호로 변화시키면서, 역으로 전근대 사회를 이 관념 속에 비춰 본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감각의 하나였다.

참고문헌

- 김지영, 「'기괴'에서 '괴기'로, 식민지 대중문화와 환멸의 모더니티」, 《개념과 소통》 5,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0.6.
소래섭, 《예로 그로 넘센스: 근대적 자극의 탄생》, 살림, 2005.

